

전주시, 문화일자리 만들기 집중

문화관광체육분야 7대 추진전략 제시

도시 가치 확산 '2030 전주문화비전' 수립 올해 마무리 세계문화유산포럼 위상 강화·유산 대상 시상식도 육성

전주시가 올해 전주의 우수한 문화가 관광으로 이어지고, 관광이 경제와 일자리로 연결되는 문화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전주다움의 가치를 문화발전 동력으로 삼기 위해 완산권역의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평과 덕진권역의 뮤지엄벨리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주만의 문화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21일 열린 문화관광체육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관광체육분야의 7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비전으로 한 문화관광체육분야 7대 추진전략은 △문화도시 전주의 가치 확산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 전주 만들기 △전통을 미래문화 발전 동력으로 승화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를 통한 체류형 여행지 조성 △민저 생각하고 함께 행

동하는 스포츠산업 기틀 마련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 및 동물친화 도시 조성 △시민 속에서 소통하는 시립예술단 공연 및 시민참여 확대이다.

먼저, 시는 문화도시 전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2030 전주문화비전 수립을 올해 마무리하고,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통문화와 현대기술이 조화된 국내 최고수준의 '한국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한 국비 3억을 확보한 만큼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는 등 전주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적 도시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시는 문화재산을 통한 공동체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문화와 함께하는 일자

리 육성에 힘쓰기로 했다.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 전주의 경우, 시는 국내 주요도시와 상호협력력을 통한 관광홍보에 나서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콜센터 및 서포터즈 운영을 바탕으로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한지 원형보존과 발전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전통한지 관리지원 등을 통해 '전주한지 원형 보존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홍보사업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 기반 구축 △한복문화 및 한복산업 육성 등 △국제슬로시티 중심의 전주 브랜드 강화 등 전통 한복화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사업들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통을 미래문화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전주의 풍부한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 및 활용하는 한편, 100년 후 보물이 될 미래유산을 발굴해 전주의 관광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 전주의 3대 포럼 중 하나인 세계무형유산포럼의 위상을 강화하고, 올해 최

초로 시상하게 될 전주 세계무형유산 대상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시는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을 체류형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올해 한옥마을 주민과 상인, 시민이 함께하는 '주민주도형 한옥마을 재생 2.0' 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스포츠산업 기틀 마련을 위해 △지도자 연수프로그램 추진 △대규모 대회 유치 등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단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주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빙상경기장 시설 리모델링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인프라도 구축한다.

황원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찬란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관광자원, 전주다움을 바탕으로 미래문화 발전 동력을 준비하고 재창출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면서 "소중한 역사문화자원과 전주다움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더욱더 성장하고, 전주의 문화 영토를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청년이 그리는 청년정책이야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발대식

전주만의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과 행정의 소통창구가 될 '제3기 전주시 청년희망단'이 출범했다.

시는 21일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음마당에서 만 18~39세의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청년희망단 위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청년희망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기 청년희망단 위원들은 지난해 말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과 사전교육을 통해 선발됐으며 올 연말까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정책을 전주시시에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청년희망단 위원들은 올해

특별 수시 회의를 통해 지역청년의 문제를 발굴·조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맞춤형 청년정책을 설계해 전주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년희망단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청년희망단 활동을 위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성공적인 위원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또, 참여위원들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운영된 전주시 청년희망단을 통해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청년 캡이어 정착 △지역청년 JOB소통 사업 등을 발굴하고 전주시의 실제 청년정책 사업으로 반영했다. /송효철 기자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오늘부터 선착순

갑수목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스스로 건강을 보호하고 이웃들의 건강도 지켜주는 시민 파수꾼을 양성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미세먼지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단장 배귀남)은 22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에 참여할 시민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은 '미세먼지, 꼭 알아야할 10가지 상식'을 주제로 오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미세먼지 분야 강사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시민활동가로 양성하고 향후 미세먼지 분야 시민참여기구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성과 건강에 대한 영향 △미세먼지 대응요령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법 등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총 10개 강의로 구성·운영된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수료증

이 제공되며 향후 심화교육인 '미세먼지 파수꾼 리더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과 리더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간담회 등 의견 수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맑은공기추진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자우편(psha8023@korea.kr) 또는 팩스(063-281-6689)로 신청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인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온고을 역사·지명이야기'

전주시 인후문화의집작은도서관(관장 고미숙)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총 8회에 걸쳐 초등학생 20여명과 함께 '우리 전주 온고을 역사와 지명이야기'를 주제로 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매 시간 △전주, 온고을의 역사와 문화유산 △전주 10경의 유래 △전주 설화이야기 △기린봉·팔죽뱅이·명지골·도마다리·서남방이 등 지명이야기 △삼한국대부인 전주최씨 묘터와 전주시 시사재 답사 등을 주제로 전주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박아름 학생(용진초 5학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가 깊은 전주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전주 설화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고 다른 친구들에게 '도마다리'에 대해 이야기 해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미숙 인후문화의집작은도서관장은 "우리전주 온고을 역사와 지명이야기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는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는 말이 참 행복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책으로 배우는 환경동화책 308권 기증. 국내 유일의 펄린서적 전문출판사인 펄린나라(대표 김원수)가 미래전주를 이끌어갈 영유아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서를 후원했다. 전주시는 21일 김원수 펄린나라 대표가 전주시청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등 영·유아를 위해 자신이 직접 저술한 펄린동화책 308권(50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중화산동 '청춘 101', 여성안심주택 된다

CPTED 전문가 자문회의

전주시가 청년 여성 근로자와 여대생을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을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여성안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주형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사업'은 시가 민간소유의 토지(건물)를 매입하거나 공공 부지를 활용해 사업시행자에게 장기 20년까지 임대하면, 사업시행자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21일 올 상반기 중 전주형 사회주택으로 공급 예정인 중화산동 '청춘 101' 여성안심 사회주택사업장에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청년 여성들을 위한 사회주택 사업현장과 주변지역에 대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전문가 자문회의를 적용함으로써



전주시는 21일 올 상반기 중 전주형 사회주택으로 공급 예정인 중화산동 '청춘 101' 여성안심 사회주택사업장에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주형 사회주택(15가)을 공급하기 위함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현장과 주변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장과 시설물을 상세히 점검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주변 CCTV △비상벨 △방범창 △가스배관 캡설치 △조명 개선 등 방법시설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범죄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동과 심리 등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범죄예방디자인을 개발해 환경을 바꾸는 것이 CCTV를 몇 대 더 설치하는 것 보다 범죄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또 여성 입주자들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퇴근 범죄예방 방법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주형 사회주택 운영사업자인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혁신 리빙랩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화산동 '청춘 101'을 여성안심 사회주택으로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와 사회주택 공급·운영사업자는 오는 23일부터 전주형 사회주택 '청춘 101'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한 리모델링을 추가 실시하고, 오는 3월에 입주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송효철 기자

가방 훔친 50대 검거

슈퍼에서 가방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21일 A모씨(59)를 가방 등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전주시 덕진구 003길 한 슈퍼 진열대에서 총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방과 명품안경 등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2시경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모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지갑 절도 30대 불구속 입건

익산경찰서는 21일 뽕기방에서 지갑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모씨(31)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 6분경 익산 시내 한 뽕기방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5만원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7시경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모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재판부 "반인륜적 사안"

생후 50일 된 친딸의 새골과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모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새골과 허벅지 뼈를 부러뜨려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딸을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 그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모씨의 아내는 사건 이후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강한 외력을 행사해 딸을 학대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모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딸이 사는 집을 찾아간 혐의(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모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

찰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 아동의 뼈는 성인의 뼈와 비교해 탄성과 관절의 유연성이 높아 잠결에 몸이나 팔꿈치로 피해 아동을 눌러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과 당시 피고인이 결혼과 육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모씨는 20대 초반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을 했고 계임에 몰두하며 우울 증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모씨는 어머니에게 '뱀이 안 자서 못 잤다. 짜증난다. 감자키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괜히 딸이 밟고 싶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모씨가 결혼과 육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딸이 새벽에 울고 보채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생후 50일에 불과한 딸에게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아의 뼈는 유연성이 매우 높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없고 대퇴골 쪽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강한 외력의 폭행을 당해 그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대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되자 별다른 동요 없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